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2월 11일(주일) 제1421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ohn14:6)



2022.12.12 (월) - 2023.1.20 (금) 오전 5:30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

(개인기도 5시, CGNTV & 유튜브 Live 5시 30분)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12일~1월 20일 오전 5시 30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이재훈 담임목사, 이주연, 강동진, 이태후, 박종길 목사 등 설교

12월 12일(월)부터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주제는 '길, 진리, 생명'이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에서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 14:6)는 말씀을 배경으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생명경시 사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은혜와 진리', '거룩과 진리',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주연(산마루교회), 강동진(보나눔공동체),

이태후(필라델피아 빈민사역), 김영련(산호세온누리교회 은퇴), 박종길(서빙고온누리교회), 강부호(양재온누리교회), 이기원(목회기획실) 목사도 설교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캠퍼스 방문설교도 할 예정이다. 부천 12월 15일, 인천 12월 20일, 대전 12월 22일, 남양주 12월 27일, 수원 1월 3일, 평택 1월 5일, 강동 1월 10일, 양지 1월 12일, 안산 1월 17일, 영종 1월 19일 설교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12월 4일 예배에서 "모임도 많고 바쁜 연말연시일수록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청년부의 따뜻한 겨울 선물

사랑앓나눔, 1천55가구에 생필품 전달
크리스마스 블레싱, 12월 25일까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서울 시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앓나눔'이 한창이다.

사랑앓나눔은 지난 12월 3일(토)과 10일(토)에 실시했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가 참여했다. 서울 시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및 불우이웃 가정 1천 55가구에 생필품, 쌀과 반찬 등을 전달했다. 사랑앓나눔은 매년 겨울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세린 자매(Pole2대학부)는 "사랑앓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방법을 배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것이다"고 고백했고, 김승겸 형제(SNS청년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작은 온기를 선물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이웃사랑에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교회와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지를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12월 10일(토)부터 25일(주일)까지 이어진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에서 94개 팀이 참가한다. 전국 74개 지역교회,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지를 방문해서 성탄예배, 어린이사역, 전도사역, 문화공연, 선물, 온오프라인 블레싱 등을 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12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예배

12월 11일은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이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오전 11시 30분 부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이날 부천온누리교회 감사예배에서는 차세대 특순, 연합 성가대 찬양, 이재훈 담임목사 축하 영상 상영, 결연 선교사 축하 영상 상영, 윤길중 목사 설교, 케이크 커팅식 등이 이어진다.

윤길중 목사(부천온누리교회 담임)는 "부천온누리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이재훈 담임목사님, 수고하여주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힘쓰는 교회,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계속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온누리교회의 새로운 표어는 '스무 살, 청년, 꿈꾸는 교회'다. 20주년을 맞아 20대 청년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자는 다짐을 담았다. 지난 2002년 12월 15일 창립한 부천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멈춤 없이 성장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12월 18일까지 선물 배송!

2022 엔젤트리 사연 5,768건 곧 연결 완료

2022 엔젤트리 사연 5,768건이 곧 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선교본부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늦어도 12월 18일까지 선물 배송을 완료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22 엔젤트리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는 성도는 각 캠퍼스 엔젤트리 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2022 엔젤트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내년에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시선이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에스겔 18: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나”(겔 18:2).

기독교인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유라도 알면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일종의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속담을 자주 사용했다. 신 포도를 먹는 아버지와 이가 시린 아들의 비유를 사용했다. 에스겔 당시 바벨론 포로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조상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당시 이런 생각은 다음 말씀의 영향을 받은 점도 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 20:5b).

이 구절의 바른 의미는 아버지가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영향이 후대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가족상대론에서는 한 사람의 어려움과 상처가 원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상담할 때 반드시 원가족과 관련한 도표를 그리고,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성찰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내가 행동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조건 부모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갖지 못한 사람 중에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포로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의 죄악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조상들 탓만하며,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 및 회개 촉구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릇된 생각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물론 포로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생활을 한다는 억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포로생활의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에스겔서 18장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시고, 그들 각각의 죄에 대해 판단하신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자녀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악에서 돌아켜 의의 길로 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우리는 어떤 일이 풀리지 않거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나 사회, 국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내게 일어난 고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 안에 내 죄악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죄인으로 이 땅에 포로 된 존재들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허무한 인생, 불의한 세상을 사는 지혜

12월 12일~12월 18일
전도서 2:12~6:12



목상포인트 1:

지혜자든 우매자(어리석은 자)든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은총은 현재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전도자는 수고해서

모든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인간의 현실을 본다.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나 해 아래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수고의 낙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은혜로 소산물을 주시고, 제 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상하자.

▶전도자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도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잊히기에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말한다. 지혜를 다해 수고한 결과도 뒤를 이을 자가 관리하므로 결국 헛되다는 것이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해도 슬픔 뿐이지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기쁨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재물과 부요함을 주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상포인트 2: 전도자는 사람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반되는 열네 개 항목의 때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발생한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감춰진 미래’를 감내하면서 살아간다. 시간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주관자 되시며,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을 목상하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이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도 끝도 측량할 수 없다.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목상포인트 3: 전도자는 권력자에게 학대당하는 약자를 위로해 줄 사람조차 없는 냉엄한 현실과 성공한 이웃을 시기하고 음해하는 잔인한 현실을 본다. 한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법정에서마저 악과 불의가 만연함을 목격한 전도자는 깊이 실망한다.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이 땅의 법정 대신, 정하신 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을 기대한다. ‘높은 자’의 불의한 행위를 감찰하는 ‘더 높은 자’, 곧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목상하자.

▶해 아래 세상에서는 재판하거나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전도자는 지금 살아 있는 자보다 오래전에 죽은 자가 복되고, 그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선언한다. 해 아래 악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볼 때, 더 높은 자가 감찰함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성도가 누리는 모든 것은 ‘자기 열심’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산물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사람이 세운 법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불의한 세상일을 볼 때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높은 자’의 불의한 행위를 감찰하는 ‘더 높은 자’를 기억하고, 내가 공의로 행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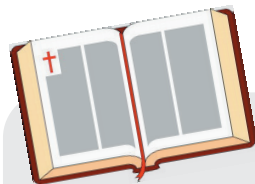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해!

시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아버지는 젊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노년에 이단 교회에 잠시 빠지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증산도에 빠져 계시다가 올해 봄쯤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살이에 대한 원망과 시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계속된 사업 실패로 힘겨운 빛 갚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은 상태고, 현재 치매 초기증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 주변에 저희 가정 외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2008년 결혼하고 시아버지를 저희 부부가 계속 전도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겨울 새벽기도 때마다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지난해 설날 시어머니를 전도했는데 되짜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5월 온누리전도학교와 올해 5월 부모맞춤전도집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행복해하고,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부모님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주시고 가족들의 영혼 구원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주시고.

/ 이명대 성도(영여예배부 OEM)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 구원의 스케줄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스케줄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감춰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비밀도 아닙니다. 한 때는 모든 사람에게 감춰졌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 알려져야 하는 공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역사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9~11장에서는 이스라엘 불신앙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소원을 아뢰는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남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인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이 없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도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고,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완악함과 불순종 가운데 대다수가 처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과 로마서 11장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축복의 사슬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원가지가 부러지고, 부러진 곳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흠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태어난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욱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루살렘교회가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마땅한

데, 예루살렘교회 유대인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초기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던 그들조차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교회가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는데 중요한 선교센터 역할을 합니다. 만일 예루살렘교회가 장애물 없이 계속 확장되었다면 어쩌면 복음이 더 널리 확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화 하지 않은 완악함이 도리어 안디옥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역설적인 흐름이 사도행전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어 복음이 더욱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첫 번째 단계의 축복이 초대교회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방인에게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에게 시기심이 일으켜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선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나쁜 시기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지만, 마땅히 나에게 속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선한 시기심’입니다. 마땅히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악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시기하심과 같이 구원에 대한 열망과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심이 일어나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볼 때는 미래이고 우리가 볼 때는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미래가 되는 역사를 바울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3단계 축복의 사슬’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다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축복의 사슬이 이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목적

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의 총만함은 이방인의 부요한 구원으로 흘러가며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란 ‘인종적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수’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5-26절).

‘이방 사람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바울 당시처럼 대다수가 믿지 않는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절 초반부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장차 미래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을 얻을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가능성 정도로 설명하는데 점점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23절).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은 개연성으로 확대됩니다. “...원가지들이 이 사람들 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24절). 26절에서는 확실성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6절).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접붙일 수 있고, 더 쉽게 접붙이시며,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전체가 아닙니다. ‘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온’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온’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9~11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먼저 택함을 받은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걸 가지고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란 ‘인종적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야 로마서 9~11장 전체 문맥에 일관된 흐름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화와 은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화입니다. 그들이 한때 불순종과 완악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공화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화히 여겨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심판에 처하지 않으시고, 공화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자유로 우리를 공화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심판과 멸망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를 공화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진멸함으로 끝내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노아와 그 후손들을 남겨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완악함을 또 나타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도 인간의 완악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끝까지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전적인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공화하십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아람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 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26~27절).

하나님이 맺으신 죄 사함의 약속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약속이 그들에게도 공화와 은혜가 부여됩니다.

〈13면에 계속〉

목사님이 추천하는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신앙여행지’

기독교문화유산이 한곳에 모인 ‘광주 양림동’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릿 대표)

친구들은 여행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목사님은 다양한 기독교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놓치지 않고 꼭 방문하는 곳

들이 있어요. 양화진 같은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장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신앙 선배들의 유산을 담아놓은 기념관, 선교 현장이었던 학교와 병원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곳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 여행 장소로 그곳보다 좋은 곳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신앙의 유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광주 양림동’을 소개하고 싶어요.

유진벨 선교기념관

유진벨(Eugene Bell, 한국 이름 배유지) 선교사님은 1895년 4월 한국에 파견되었어요. 유진벨 선교사님은 전라남도 광주와 목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20여 개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어요. 그야말로 ‘호남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예요. 유진벨 선교기념관은 유진벨 선교사님의 선교활동을 아주 잘 정리해두었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외에도 ‘양림동의 선교사들’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님들이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모습을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어요. 그 기념관에 적힌 ‘성공이 아니라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이라는 문구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오방 최흥종 기념관

“가족에 대해서 나태함을 버리고, 사회에 대한 단일한 태도를 버리고, 경제문제에는 재물에 예측되는 것을 버리고, 정치에서는 원칙 없이 포기하는 것을 버리고, 종교적으로는 옮겨 다님을 버린다”
이 문장이 최흥종 목사님의 아호(문인)



전남 광주 양림동에 가면 선교기념관, 선교사 묘원, 기독교병원 등 기독교문화유산들을 살펴볼 수 있다.

나 예술가의 호나 별호를 높여 이르는 말)로 정한 ‘오방’ (五放)의 뜻이에요. 최흥종 목사님은 이 신조를 평생 지키며 살았고, 바로 그분의 일생과 정신을 담아낸 곳이 ‘오방 최흥종 기념관’이에요. 이 기념관은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새벽의 빛(기독교와 최흥종의 만남)’, ‘신행일치의 길(일생을 통해 헌신한 사역들)’, ‘영원한 자유인(인간 최흥종과 사람들)’을 주제로 최흥종 목사님을 소개한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삶의 증거들을 보이셨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묘원

호남신학대학교의 약간 높은 언덕에 오르면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 묘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전라남도 최초의 선교사로 광주에서 활동했던 유진벨 선교사님과 클레멘트 오웬 선교사님의 마추한 묘비를 시작으로 40여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세워져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어린이의 묘비도 눈에 들어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은 이주민이 겪는 차별뿐만 아

니라 열악한 의료시설과 환경, 온갖 질병과 풍토병과 싸우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러나 신앙의 열매들은 큰 희생을 요구했는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사망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복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양인제과’와 오웬 선교사

양인제과는 빵집으로 유명세를 타긴 했어도 그리 오래된 곳은 아니예요. 이곳은 가게 간판보다 큰 사진 하나를 건물 벽에 붙여두었어요. 바로 오웬 선교사님의 사진이랍니다. 양림동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잠깐 이곳에 멈춰 입까지 전해지는 즐거움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오웬팔빵’이라는 이곳의 유명한 메뉴를 맛보며 선교사님들의 삶과 신앙을 나눠 보세요!

이 외에도 광주 양림동에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 양림교회, 오웬기념각, 광주기독교병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기독교문화유산들이 가까운 곳에 모여 있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독교문화유산을 보러 광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2월 7일
본문(시 40:13~17)



1. 시편 기자는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원수들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 ①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고 칼을 휘둘렀다
- ②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다
- ③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했다

2.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본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달라진 마음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35.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요(2)



마가복음 6:4~6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 거기서는 아무 관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형제에게만 안수하여 고쳐실 뿐이었고
6.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우리들 작품

그림으로 그리는 <마가복음>

가족과 함께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읽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 김명진 학생(양재 파워웨이브)

다음세대, 교회, 사회가 위험하다!

독을 품은 교과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명이비인
후과 원장, 의료윤리연
구회장)

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안이 어찌다가 모범이 되기는커녕 거짓 이념의 도구가 된 것일까?

첫째, 개정안에는 보편적 윤리를 부정할 위험성이 담겨 있다. 새 교과서는 다문화시대에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편적 윤리나 양심,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양함이 무조건 좋다고 가르치다가는 윤리가 빠진 사상과 행위마저 존중해야 할 위험에 처한다. 건전한 비판 의견조차 ‘차별이나 혐오’로 인식하게 만든다. 다양성의 이유로 동성결혼이나 이슬람 문화 등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현재 서유럽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 윤리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 왜곡된 인권을 교육하려는 내용이 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범주에 장애인, 이주 외국인 외에 성소수자를 다루었다. 공청회 이후 학부모들의 반발로 ‘성소수자’ 단어를 뺐지만 마지막에 ‘등’을 넣어 그 의도는 바뀌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는 교묘하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같은 소위 ‘LGBT’를 옹호하는 것이다. 동성 성행위나 트랜스젠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감과 배려만 강조하였다. 교사가 이들의 보건의 문제나 정신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보편적 성(性)윤리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교과서를 오염시켰다. 사람의 성별 정체성 기준을 남녀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적 성(Gender)에 두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와 여자 양성(兩性)을 부정해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교과서에 실은 것이다. 이 위험적인 교과서가 배포될 위기에 놓였다. 청소년기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성적 쾌락, 낙태,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리라고 가르친다. 이런 것을 ‘조기 성애화’라고 한다. 이는 선량한 성윤리에 반(反)하고,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교과서는 왜 ‘성’에 집착할까?

국어, 도덕, 사회, 보건 교과서 개정안에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인 젠



“성도들의 할 일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도들은 소망이 예수님임을 세상에 외쳐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

터를 지지하고, 다양한 가족 결합이라며 동성 결혼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인간의 성에 대해 ‘전성적(全性的)’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한국말로 번역되지도 않는 ‘섹슈얼리티’를 총체적인 성(性)이라며 이해하라고 한다. WHO 정의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젠더정체성과 역할, 성적지향(동성애, 소아성애 등),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환상, 욕망 등을 포함한다. 교과서에 싣고 가르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들이다.

교과서가 성에 대해 집착을 보이는 배경에는 성혁명(sexual revolution)이 있다. 성혁명은 1960년대 신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일부일처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성적 인간을 창조하려는 혁명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를 폐지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다자성에 등을 제한 없이 누리는 새 인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남녀와 가정을 억압의 구조라고 규정하고, 해방시키겠다는 혁명이다. 이들 이론으로 무장한 국내의 성혁명 해방군들은 차별금지법을 시도해서 성정체성과 성윤리의 파괴를 도모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하위법인 학생인권조례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권을 가르치면서 윤리적인 성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 급기야 초중고 500만 명의 아이들의 교과서 장악을 꾀하고 있다. 성혁명 이론을 교묘하게 포교해 장기적으로 성혁명 홍위병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저들의 거짓 사상은 다음세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로 만들고 있다.

성혁명은 생명 파괴와 연관이 있다. 이들은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성, 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이름으로 성

생활과 생식이 권리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WHO 및 UN아동권리협약, UNESCO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생식의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서구의 가이드라인은 나이에 맞지 않는 외설적인 성교육이라고 평가받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에게까지 성적 자유를 권리라고 주장하고, 부모 동의 없이 낙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국 생식의 권리란 임신출산의 권리보다 낙태의 권리를 의미한다. 생명 파괴를 개인의 권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교육부가 실시한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에서 많은 국민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제3의 성, 동성애와 동성결혼뿐 아니라 각종 성욕의 행태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윤리적 비판의 내용을 혐오와 차별이라며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버젓이 교과서에 실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절제와 예의를 배워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인 성의 쾌락과 성행위의 자유를 언급해서 자녀들을 성적 타락의 위험에 노출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성도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정되는 교육과정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창 1:27), 남자가 그의 아내
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창조하셨다
(창 2:24). 하나님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로 도덕을 알게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를 성령미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사탄은 성도덕을 붕괴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 가정의 개념을 혼동케 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대적하려 한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사탄은 낙태를 정당화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도전하고 있다.

아이들을 성에 종속되고 탐닉하게 만드는 조
기 성애화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고 부모와 자녀, 교회와 성도, 교사와 학생
간의 모든 관계를 한 번에 파괴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사회 구조의 자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사탄은 이제 교과서와 법
을 통하여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회의 구조적
질서를 파괴시켜 사람들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가정과 교회, 국가가 붕괴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영국은 학교에서 LGBT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 이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성전환 수술자가 33배 폭증했고,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느끼는 아이들 비율이 4.00% 급증했다.

국민 의견 수렴이 끝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할 일은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악을 향해 치닫는 세상의 속도가 악한 교과서로 인해 더 빨라지면 안 된다. 자녀들이 위험하다. 둘째,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 불잡을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성혁명이든 뭐든 간에 불잡고자 한다. 성도들은 그 소망이 예수님임을 세상에 외쳐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 가정예배는 자녀들을 지키고, 세상에 천국 소망을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는 용사로 양육하는 좋은 길이다. 큐티하고, 그날의 감사제목과 기도제목을 자녀들과 나누면 된다. 가정예배가 있다면 아이들은 세상 교과서에 흔들리지 않는 청년으로 자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주님, 세상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다음세대를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가정예배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누리교회는 제 생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경북 상주교회 담임목사 청빙된 윤석원 목사

윤석원 목사(전 송파A공동체)가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됐다. 상주교회는 120년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교회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과 이주민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윤석원 목사는 1992년부터 온누리교회에 출석했다. 파워웨임을 시작으로 대학청년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2005년부터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섬겼다. 대학청년부, 서빙고온누리교회, 양재온누리교회, 남양주온누리교회, 강동온누리교회, 대전온누리교회 등을 섬겼다.

12월 18일 상주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앞두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윤석원 목사를 만났다. 윤 목사는 “32년 몸담은 온누리교회를 떠나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상주교회의 뜨거운 예배와 선교 열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석원 목사와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는 저와 저희 가정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따뜻함과 사랑으로 대해주신
동역자님, 장로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온누리교회를 떠난다는 게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올해 초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는지 말해 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두 배나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왕하 2:9).

감절의 영감을 구하고, 받았던 엘리사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보다 제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않기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와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셨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저와 저희 가정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1992년 저희 부모님께서 고모님의 소개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하용조 목사의 말씀과 섬김에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의 첫 예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뻐 뛰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주 주일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과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던 ‘경배와 찬양’에서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경 아웃리치 저녁기도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2005년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공동체를 섬기셨습니까?

“대학청년들을 섬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온누리교회는 평신도는 전도사처럼, 전도사는 목사처럼, 목사는 당회장처럼 섬기는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과 목회자들과의 동역이 있을 수 없는 추억이자 은혜입니다. 2005년 1월부터 J4U 청년부 파트전도사로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전임교역자가 되면서부터는 여호수아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 이후 M2대학부, Pole2대학부, 길청년부, J4U 청년부, 강동온누리교회 프라미스청년부, 대전온누리교회, 양재온누리교회 등을 섬겼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말씀해주십시오.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기도의 자리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파트전도사로 남양주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청년들과 함께 새벽기도하고, 금식기도 했던 순간, 처음으로 담당교역자가 됐을 때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소수 청년들과 2-3년 동안 했던 기도모임도 뜻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과의 새벽기도가 기억납니다. Pole2대학부에서는 종로 정철어학원 지하강의실에서 모였고, 강동온누리교회 청년들과는 화평홀에서 모여 새벽기도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온누리교회 동역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인 저를 잘 섬겨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故 하용조 목사님, 이

재훈 담임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축복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평신도가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라 큐티 강사로 활동하시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일이 기억납니다.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인 저를 상주교회 담임목회자로 추천해주신 이재훈 담임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 덕분에 개교회의 담장을 넘어서는 크리스천공동체의 비전과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 가슴에 담아두고 목회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선배, 동료, 후배 목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함과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주교회와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교회는 120년 전 배위량 선교사가 개척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섬겨왔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예배가 있고, 선교 열정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원로목사님이신 광희주 목사님은 20년 동안 상주교회를 부흥시키셨고, 장로님들과 리더십들도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상주교회는 지역 맞춤형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선교에도 열심인데 다문화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 이주민들을 섬기고 제자화해서 베트남 현지에도 교회를 개척할 만큼 뜨거운 선교 열정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24시간 꺼지지 않은 예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주교회에 예배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2022년 예손 정기 전시회 ‘예술가의 시선’展이 12월 12일(월)까지 갤러리 라메르 제1전시실(종로구 인사동5길 26 라메르 빌딩)에서 열린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20여 명의 그림 113점을 전시하고 있다. 꽃다발을 들고 환한 미소를 주고받는 감미로운 프러포즈 그림, 핑크빛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자신을 표현한 그림, 돌고래가 바닷물을 가르며 뛰어오르는 그림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유독 눈길을 끄는 그림 두 점이 있었다. 황유정 작가와 최선영 작가의 그림이다. 그림 그리는 스타일도, 예손에서 그림 그린 시간도 제각각이지만, 그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다. 바로 “나는 예손 화가입니다. 예손에서 그림 그려서 너무 행복해요”다. 예손에서 그림 그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황유정, 최선영 작가를 만났다.

“예손 화가 황유정, 최선영입니다!”

예손 정기 전시회에서 만난 발달장애인 화가들

황유정 작가가 그린 ‘루돌프와 크리스마스 장식’ 그림은 이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린다. 빨간 코 루돌프가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로 활짝 웃고 있다. 루돌프 주변에 있는 트리 장식이 한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낸다. 새하얀 눈꽃 문양도 빠질 수 없다. 정말 예쁘고 잘 그린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이번 예손 전시회 메인 그림으로 디스플레이(Display) 되어 있다. 황유정 작가에게 왜 루돌프를 그렸는지 물었다. 단순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대답이 돌아왔다.

“루돌프 시슴, 예뻐요. 눈꽃, 너무 예뻐요!”

“자그마치 10년 기다렸다”

황유정 작가는 올해 7월 1일 예손에 들어온 새내기다. 그녀에게는 이번 예손 전시회가 첫 전시회인 셈이다. 황유정 작가는 예손에 들어 오기 위해 무려 10년을 기다렸다. 예손 새내기지만, 그림 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녀의 어머니 최영혜 씨가 예손 작가가 된 딸의 마음을 알렷다.

“유정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예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올려놓고 기다렸는데, 자그마치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지만, 유정이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곳이라 그런지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조언으로 예술대학교에 지원할 정도로 황유정 작가는 그림 실력이 출중하다. 그런데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유정이가 아버지가 대학교 진학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정이가 비장애인과 달리 말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대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학우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걱정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의 반대로 대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지만, 황유정 작가는 그림 그리는 일을 쉬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유정이가 그 대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유정이의 그림 재능이 뛰어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사생대회를 휩쓸었던 황유정 작가다. 미술학원이라고 한 번도 다닌 적 없는데 말이다. 엄마 눈에 그 딸이 얼마나 대



예손에서 그림 그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황유정(사진 왼쪽), 최선영 작가(사진 오른쪽).

견하고, 안타까웠을까. 그래서인지 10년 만에 예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떨 듯이 기뻐다.

“예손에서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서 유정이가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엄마, 나는 행복해. 예손에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행복해’라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돼서 유정이고, 우리 가족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머니 옆에 있던 황유정 작가가 한마디 거들었다.

“‘(예손에서 그림 그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편안해요. 좋은 화가가 될 거예요! 저는 예손 화가예요!’”

아주 특별한 재능 가진 ‘최선영 작가’

최선영 작가의 그림은 다채롭다. 커다란 진주 목걸이, 두건, 안경을 쓴 강아지 푸들, 핑크빛 갈대밭이 넘실대는 파란색 철교(鐵橋), 활짝 핀 나비 날개에 새겨진 생생한 주름 무늬까지.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자랑한다. 사실 최선영 작가는 손으로 하는 건 뭐든 다 잘한다. 최선영 작가의 보호자 김수남 씨(이모)가 조카의 재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또 했다.

“우리 선영이는 손재주가 엄청 좋습니다. 비즈공예로 스마트폰 액세서리도 잘 만들고, 피아노도 잘 쳐서 음악대학에 들어가기도 했습

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과제빵을 잘해서 일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제빵 관련 대기업에서 취업 제안이 들어올 정도였단니까요. 본인이 거절했지만요.”

최선영 작가가 왜 제빵 관련 대기업의 취업 제안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음악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선영 작가가 그 좋아하던 음악대학을 다니다가 몇 년 만에 그만뒀다.

“수업 중에 음악감상 과목이 있었는데 학점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담당 교수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최선영 작가를 달랬다고 한다. 그런데도 최선영 작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잘 다닐 줄 알았던 음악대학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다. 그때 예손을 알게 됐다.

“때마침 지인이 예손을 알려줬습니다. 윤이 정말 좋아서 예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손에서 전문적인 미술 훈련을 받으면서 선영이가 조금씩 화가로 성장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지요.”

최선영 작가는 예손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전문적인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요새 예손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드로잉’ 과정도 그녀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 드로잉은 한국마사회 강북지사에

서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들에게 디지털 드로잉 훈련을 위한 드로잉 기기(아이패드) 및 강사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최선영 작가는 디지털 드로잉 훈련을 받는 예손의 대표 작가 중 하나다.

“예손 친구들과 함께 그림 그리면서 제 그림이 더욱 풍성해지고, 실력도 느는 것을 느껴요. BC카드 홈페이지(payZ; 미술품 거래 플랫폼)에 제 그림이 올라간 것을 보고 정말 뿌듯했어요. 가장 기본 좋을 때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해줄 때예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고 신나요!”

제 그림을 좋게 봐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그림 그릴 거예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전문가 못지않은 화가가 되고 싶어요.”

최선영 작가의 이모가 예손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인사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 선영이가 예손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시는 예손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실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 금처럼 많이 도와주십시오.”

/ 현영주 기자 joo@onnuri.org

라떼는 말이야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 가이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생활을 유익하고, 즐겁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멘토님!”

‘청춘경영코치’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고민하다가 정한 나의 홈페이지 이름이다. 나는 청년(靑年), 젊은 부부들에게 관심이 많다. 나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던 대학부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청년부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스승님과 멘토들을 만나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참으로 감사한 만남이었고, 지금도 그때 배웠던 삶의 가치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다. 나 역시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손길이 되고 싶어 Pole2대학부 멘토로 섬기고 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멘토’라는 것에 과분한 기쁨을 느낀다. 그들에게 더 좋은 도움이 되고자 전문코치 자격증을 따고, 정신분석 상담을 배우고 있고, 크리스천 결혼문화팀(가정사역공동체)에서도 섬

기고 있다. 멘토로 섬기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크리스천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점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청년들이 정말 흐뭇하고 대견스럽다. 그 청년들을 축복하며 슬기롭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첫째, 공동체에서 평생의 친구들을 만들자. 나에게도 청년부에서 만나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자녀들까지 모두 친하게 만나는 모임이 되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진심 되게 기도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동지들이다. 현재 속한 대학청년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친구들을 많이 찾고, 만나고,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배우자도 공동체 안에서 찾고 가정을 꾸리기를 축복한다.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찾는 방법은 공동체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다. 순예배와 아웃리치 현장은 그 사람의 가치와 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다. 재미있는 모임을 창의적으로 많

이 만들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찬란한 청춘시기를 멋지게 보냈으면 좋겠다.

둘째,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자. 사회는 경험 많고, 특출한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경험이 없어도 배우면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그 열정을 더 높이 사기도 한다. 해보고 싶은 섬김의 영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참여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실제로 참여하다 보면 기대하지 못했던 은사를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다. 독거노인을 돕는 일을 하다가 꿈을 발견하고 사회복지사가 된 친구도 있고, 농촌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전공을 농경제학으로 바꾼 선배도 있다. 나 역시 선배들이 기회를 준 덕분에 수련회 행사를 수차례 진행하게 되었다.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행사 진행을 하곤 한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은사를 개발하면 좋겠다.

셋째,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추억을 많이 만들자. 대학청년시절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많은 고민과 궁금증

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여쭙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추억을 누려 보기를 권하고 싶다. 성경 말씀을 삶에 던져보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간증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청춘의 특권 아닐까.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혜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당부가 깃들여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과 깊은 추억을 만들고, 이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기류를 따라 멋지게 찬란한 비행을 할 청년들 모두를 응원한다.



김영진 멘토
(Pole2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인내, 발효와 부패의 차이!

우리는 인내를 강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인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삶의 덕목이다. 인내의 의미는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을 견디어 내는 것’이다. 삶에서 인내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지만, 최근 경향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여서 참고 견디는 시간을 줄일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어쩌면 고통과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즉각적인 표현과 반응을 독려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인내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진 면도 있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인내는 인간관계와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인간의 덕목이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인내의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 물론 무작정 참고 아무런 표현하지 않는 부정적인 침묵과 인내는 자신과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때문에 적절한 자기주장과 적절한 인내가 결혼관계에서 조화롭게 나타날 때 결혼생활이 더욱 만족스럽게 된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부부의 특징은 배우자의 특성을 서로 수용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인내하는 것이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 대해 실망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서로 자신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틀에 끌어오기 위해 쉽지 않은 힘겨루기를 하곤 한다.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기대와 뜻에 따라주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낙심과 불만, 인내가 바닥이

나는 것을 경험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긍정적인 자기 반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상대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결국 배우자를 고치려는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을 고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내에서 우선 자신에 대한 변화와 인내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부부 사이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와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후회를 꾸준히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 배우자를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인내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자신에 대해서 믿어주고, 인내해주면서 변화를 독려주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모습도 수용해주고 인내해줄 수 있다. 먼저 나의 모습을 너그럽게 바라보면서 배우자의 모습도 너그럽게 봐주는 인내의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본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성장하면서 충분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게 된다. 충분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용납되어본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충분

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용납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타인을 용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런 충분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용납하고 인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 본다면 배우자와 가족을 더욱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늘 자기의 부족한 면을 들춰내고 자책만 한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책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는 ‘발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발효와 부패는 진행 과정은 비슷하지만, 미생물의 분해에 따른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난다. 발효는 인간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부패는 매우 해롭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병’은 부패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화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우울감과 불면, 식욕의 상실 등이다. 화병은 특정한 상대와의 접촉이 있는 경우 그 증상이 더 심하게 발현될 수 있다. 어려운 관계이거나 특정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혀 할 수 없이 눌러있는 관계라면 화병이라고 불릴만한 심리,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적절하게 억압된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면 화병까지 진행되지 않겠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의 관계에서는 그저 참고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인내는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같거나 비슷한 불편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문드러지는 부패의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오히려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 마음이 넓어지는 승화를 경험한다. 적극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대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냥 참지 않고 인내력을 가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법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과 직면해 보는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생활에는 발효와 비슷한 유익한 인내, 긍정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인내는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더러 상대방에게도 유익하다. 그저 참고 억누르는 부패의 과정과 같은 부정적 인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쉽게 성숙하지 않는 자신, 기대를 저버리는 자녀들의 행동, 약속을 지키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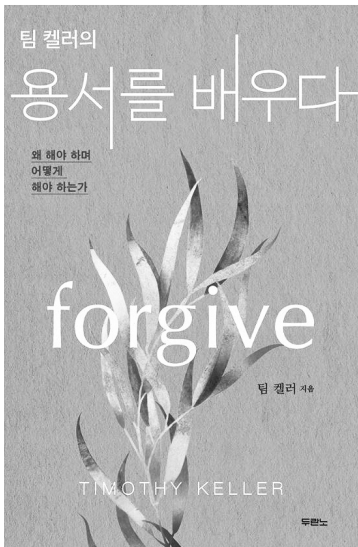
는 배우자 등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순간 순간의 실망과 낙망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기다려 주고, 더욱 성숙된 관계의 성장을 경험해야 한다(약 5:11).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두란노 신간

용서, 왜? 어떻게?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팀 켈러 저 | 두란노 | 24,000원

하면서 더없이 현실적인 믿음의 행위로서의 용서를 알려준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길도 알려준다.

“용서하는 마음을 원하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 우월감을 품지 않는 마음,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마음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받아야 할 복수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보라. 복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분이 받으셨다.”(294쪽)

미워하는 혹은 앙갚음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 성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움에 갇혀 사는 성도, 서로를 비난하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회의를 느끼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미움, 다툼, 혐오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극심한 분열과 배척, 풀지 못한 채 엉키고 응어리진 마음, 만연한 원한과 복수 문화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용서’를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21세기 C.S. 루이스라 불리는 팀 켈러가 쓴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이다. 이 책에서는 용서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설득력 있게 소개한다.

“용서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용서는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상처 입힐 뿐이다”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정도로 용서는 아주 힘든 일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어려운 용서를 왜 해야 할까?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과 복수심이 서서히 우리를 삼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책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서 비롯된 기독교적 용서의 참 의미와 기원을 자세하게 짚어 준다. 용서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공감



〈성경 읽을 시간이야〉
황엘리사 저 | 두란노 | 32,000원

‘출’,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의 세 친구’, ‘선지자 요나와 니느웨’, ‘예수님 탄생’,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아버지와 작은아들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십자가와 구원’, ‘부활하신 예수님’ 등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따듯한 그림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을 작업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글인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수많은 어린이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재미있어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고 싶은 부모와 교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크리스천 부모의 소망이다. 우리 아이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성경과 친해지게 만들지, 성경의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지 그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부모는 많다. 여기 그 부모들을 위한 참 좋은 책이 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성경의 본 뜻을 살려 쓴 〈성경 읽을 시간이야〉다.

책 〈성경 읽을 시간이야〉는 단순히 성경 줄거리를 요약하지 않았다. 성경 이야기를 최대한 살렸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 구원과 사랑, 죄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외국 작품을 번역한 책이 아니다. 한국인 작가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정성껏 그림을 그려가며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알려준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이집트 탈출’,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의 세 친구’, ‘선지자 요나와 니느웨’, ‘예수님 탄생’,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아버지와 작은아들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십자가와 구원’, ‘부활하신 예수님’ 등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따듯한 그림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 영화 소개

조선의 바울, 김창식 목사



‘머슴 바울’

어려웠다. 오히려 선교사들이 머슴인 김창식에게 늘 진절을 베풀었다. 선교사들의 삶 옆에서 지켜보던 김창식은 예수와 기독교가 알고 싶어졌다. 올링거 선교사가 건넨 한글쪽복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구절을 읽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같은 해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된 김창식은 제임스 홀 선교사와 함께 평양 선교에 동참했다.

전도인으로 선교사역을 막 시작한 김창식 앞에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양 기독교도 박해와 청일전쟁이었다. 잔혹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돌아섰지만, 김창식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들이 김창식에게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와 인연을 이어온 김창식 목사는 평생 전국을 떠도는 순행목회를 하며 예수를 전했다.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 1929년 1월 9일 72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조선의 바울’이라 불리던 한국인 최초 목사 ‘김창식 목사’의 삶을 극장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성탄절 KBS 1TV에서 방영되었던 뮤지컬 다큐멘터리 ‘머슴 바울’이 11월 24일 스크린에도 올랐다. 전국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다.

영화 ‘머슴 바울’은 평양 기독교도 박해 사건과 청일전쟁의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조선의 바울’이라 불리던 머슴 김창식의 이야기다. 머슴 김창식이 조선인 최초의 목사가 되는 과정을 그린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다. 김창식 목사의 사랑과 회생, 헌신을 담았다.

머슴 김창식은 “서양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괴해서 삶아 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직접 증거를 잡기 위해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다. 2년 동안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서 일했는데 증거를 찾기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이슬람 알아야 선교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 우리가 모르는 이슬람’

르다. 7세기 시작된 이슬람은 현재 전 세계 종교인구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이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슬람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적합한 선교 방법을 세울 수 있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이슬람에 대해 무지하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선교하시는 하나님 - 우리가 모르는 이슬람’에서는 총 8회에 걸쳐 이슬람의 발생 배경, 선지자 무함마드의 전기, 꾸란, 이슬람의 예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를 지지하는 파와 장인이자 친구였던 아부 바크르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뉩니다. 알리를 지지하는 이들이 지금의 시아파, 아부 바크르를 지지하던 이들이 지금의 순니파가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모든 이슬람은 한 형제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두 파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는 성도들에게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선교하시는 하나님 - 우리가 모르는 이슬람’을 추천한다.

한국 교회는 이슬람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아직도 이슬람을 잘 모른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선교하시는 하나님 - 우리가 모르는 이슬람’ 강사 김아영 소장(한국이슬람연구원)은 “한국 교회의 이슬람에 대한 지식과 인식은 30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슬람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

“주를 찬양하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 400여 명 참석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에 참여한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고 있다.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함께 주님을 찬양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에는 장로합창단,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온사랑합창단’,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BEE Luce Choir’, ‘축

복의통로’,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 ‘온누리선교재단합창단’, ‘물맷돌합창단’ 등 온누리교회 소속 9개 합창단과 단원들의 지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황후령 지휘자(찬양공동체,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미진 순장(물맷돌합창단)은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김영선 기자

한반도 향한 하나님의 마음!

2022 온누리 통일선교학교 종료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통일선교에 대해 배우는 ‘2022 온누리 통일선교학교’가 마무리 됐다. 통일선교학교에서는 통일의 성경적 의미, 북한과 탈북민 이해, 교회의 통일 준비 방법 등을 교육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목 도왔고, 40여 명이 수료했다. 정광진 집사(양재A공동체)는 “하나님이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알 수 있었다”면서 “통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문의: 010-4337-5927

아프리카 이주민을 위한 ‘행복한부부학교’

파주 조이하우스에서 4주 동안

아프리카 이주민을 위한 ‘행복한부부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 조이하우스에서 12월 25일까지 열리는 아프리카 이주민을 위한 ‘행복한부부학교’에는 아프리카계 이주민 20여 가정이 참석했다. 아프리카 이주민을 위한 ‘행복한부부학교’는 가정사역공동체 믿음, 희락다락방과 대외사역팀, 파주디

자인교회의 연합사역이다. 윤성호 집사(가정사역공동체)는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이 가정과 개인의 삶을 점검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 이주민을 위한 ‘행복한부부학교’에서는 결혼식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문의: 010-9976-3100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떡국떡 및 농산물 판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 떡국떡 및 농산물을 판매한다. 농어촌교회에서 양질의 떡국떡, 햅쌀, 사과, 서리태, 감말랭이, 팥, 참기름, 들기름 등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성도들에게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

농산물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미자

립 농어촌교회를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12월 18일까지 온라인 접수(<https://naver.me/GcWWP7zi>), 12월 19일과 20일 현장 접수(서빙고 본관 지하 1층), 24일과 25일 현장 판매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화성M센터 한국어 교사 모집

화성M센터(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03-1호 3층)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교사(봉사자)를 모집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팔과 캄보디아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으로, 이주민들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4605-2510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CCF 더 멋진 당신 콘서트 ‘The Next’

이재훈 목사, 원희룡 장관, 김경훈 집사 등 510명 참석

CCF(Christian CEO Forum, 회장: 강신익 장로)가 주최하는 CEO 맞춤형 전도집회 ‘더 멋진 당신’ 콘서트가 지난 12월 4일(주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막 올랐다. ‘The Next’를 주제로 열린 이번 CCF 콘서트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다. CCF, CEO School 관계자 등 5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집

사는 ‘미래사회와 믿음’을 주제로 강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불확실한 미래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천국은 숨겨진 보화처럼 존재하기에 세상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유재건 장로 천국환송예배

유재건 장로(이촌공동체)가 지난 12월 1일 노환으로 소천했다. 향년 85세. 지난 12월 5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유재건 장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사망을 이긴 승리’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유재건 장로님의 환한 웃음과 인성을 더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슬프다”면서 “죽음을 이긴 승리, 부활의 승리로 이 슬픔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유재건 장로는 변호사, 국회의원 3선(15~17대), 제3대 CGNTV 대표 등을 역임했다. 유가족으로는 배우자 김성수 권사, 자녀 유승영, 유수화, 유대현 등이 있다. 장지는 미국 Rose Hills(LA 소재)다.



“예수님 생일을 함께 축하해요!”

차세대, 성탄축하집회 및 가정 선물 전달

차세대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 12월 24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성탄축하집회가 ‘가려진 별빛(Hidden starlight)’을 주제로 막 오른다. 성탄축하집회에서는 파워스테이션워십의 찬양과 파워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중등 1학년~고등 3학년) 소

속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차세대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 성탄절에 각 가정이 함께 식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탄갑티슈’를 나눠준다. 12월 25일(주일) 차세대 예배에서 받아가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서울남부구치소 성탄 트리 점등식

새사람사역팀, 구치소 직원 등 100명 참석

사회선교부 새사람사역팀이 지난 12월 8일(목) 남부구치소(구로구 금오로 865)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새사람사역팀과 남부구치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부구치소 성탄 트리 점등식은 남부구치소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 봉

사자들이 지난 12월 6일(화) 남부구치소 정문과 잔디밭에 성탄 트리와 조명 장식 등을 설치했다. 하영훈 남부구치소장은 “새사람사역팀에서 설치해준 성탄 트리의 불빛이 고 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도 병행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

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갈렙의 변화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참가 신청은 1월 8일까지 아이스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문의: 010-7708-7700

■ 차세대 교사 간증



/ 나영준 성도(강동온누리교회)

하나님의 비밀무기를 앞서 보는 사람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 시키고, 빠르게 발전한 기술은 오히려 우리를 가뒤퍼리고 말았다. 인류는 더 똑똑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사랑의 소식보다 전쟁과 참사의 소식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런 반복되는 절망에 익숙해져 버린 어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지쳐 보인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희망을 본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예배당 바로 밑에, 어둡고 죄가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마침내 바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무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바로 밑에서는, 가장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예배가 열린다. 교사라 불리는 우리들은 이 작고도 큰 존재들 안에서 매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어둔 세상을 이겨낼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알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농학을 업으로 삼은 나는 매해 봄마다 학생들과 대학 실습장에 풀씨를 심고, 그것들이 자라는 과정을 배우고 관찰한다. 심지어 사람이 경작하지 않은 단단한 땅에서조차, 좁쌀보다

작은 이 풀씨들은 땅에 심겨 떡잎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생명을 이어간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날부터 풀들이 성실하게 해오던 일들이다. 우리는 농업이라는 말로 인간의 기술을 자랑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오직 자연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일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교사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결국 우리의 이름도 존재도 잊어버리겠지만, 아이들 마음 한 켠에 작은 사랑의 흔적이거나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흔적이 나중에 이 아이가 가장 힘든 시절을 이겨낼 한줄의 힘이 될 수 있길 기도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파종하는 사람이다. 우리 다음세대란 희망을 심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였던 것처럼 스스로를 버려 아이들을 살리자.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성실하게 파종하고 퇴비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햇볕과 비를 내려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는다.

■ 사회선교스쿨 베이직 과정 수료 간증



/ 이희정 성도(브릿지33+공동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

회사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사회선교스쿨 베이직 과정 훈련을 받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처럼 나의 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해결해주실 것을 믿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에서 섬기고 있는데, 매월 만나는 독거 어르신들을 막연하게 섬기는 것보다 깊이 있는 훈련을 받고 섬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한몫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말씀으로 전파하기’, ‘삶을 통해 전파하기’, ‘나눔을 통해 전파하기’ 중에서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예비해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배려함으로써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한다. 농어촌선교팀 사역도 체험했다. 농어촌선교

팀 사역을 체험하면서 많은 교회가 기도와 물질, 후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어촌선교팀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시골 교회들의 기도제목들을 들려주셨다.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섬길 수는 없지만, 중보기도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역을 해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우선 지금 섬기는 서빙고 이웃사랑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빙고 이웃사랑팀과 함께 만나는 독거 어르신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단순히 선물만 드리고 오기보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겠다.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했다. 그것이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먼저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 있으면 기꺼이 “아멘”하고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성북공동체 순장블레싱



/ 유남종 총무(성북공동체)

“순장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교회 공동체도 언제 대면모임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됐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순장님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교회에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순장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공동체 리더십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성북공동체는 올해 2월 첫 운영위원회에서 순장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가을쯤 제주acts29훈련센터에서 공동체 순장님들을 모시고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고, 위로를 전하는 행사를 하고자 했다. 참석대상은 순장과 그 가족으로, 시간은 10월 초로 정했다.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공동체 재정, 후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채우기로 했다. 최선의 선물과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숙소는 2인 1실로 총 23실을 준비했다. 참가 인원이 부족해도 걱정이고, 넘쳐도 걱정이었다. 제주도는 다들 많이 가본 곳이라 모두가 만족할 일정 잡기도 쉽지 않았다. 처음 생각과 다르게 비용도 꽤 많이 들었다. 곳곳에 암초와

난관들이 산적했지만, 혼자 일 하지 않게 하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등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참가인원을 46명으로 맞춰주셨다. 배우자, 가족, 자녀 등이 함께할 수 있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일정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김포공동체 조성수 장로님이 가이드로 힘써 주셨다. 이동하는 시간에는 선교퀴즈 덕분에 즐거움이 배가 되었고, 제주도를 걸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성북공동체 담당목회자 변대섭 목사님 가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린 것이다. 세 자녀와 함께 3박 4일 동안 온전하게 쉬실 수 있도록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 드렸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회복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다.

리더십들의 릴레이 중보기도와 가정마다 올려준 기도제목을 함께 나눈 시간도 행복했다. 참가자들이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했다고 했다.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린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황지연 집사(제자광성교회)

사람 낚는 겸손한 어부

믿음 없는 이혼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늘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나를 향한 연민에 갇힌 학창 시절을 보냈다. 수능을 앞둔 어느 날,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의 권유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에 가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날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메시지와 찬양을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닫혔던 마음이 열린 나는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서원하고, <사영리>를 손에 들고 대학 캠퍼스와 국내외 아웃리치에서 전도자의 기쁨을 경험했다. 그러나 취업과 동시에 선교사로서의 열정과 꿈을 접고, 구원의 기쁨을 고이 묻어버린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세 아이 양육에 지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내게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를 기억나게 하셨다. 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쓰고 제자광성교

회 ‘아들람쉐마스쿨’이라는 기독교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자녀와 부모 세대가 함께 말씀 교육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훈련받는 학교다. 훈련을 받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자녀와 가정만이 아닌 다른 자녀와 가정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일깨워주셨다. 올해 초부터 학부모와 자녀 40여 명이 전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전도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낙망하는 마음이 들 무렵 온누리전도학교의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내가 찾던 전도지 그 자체였다. 26기 온누리전도학교에도 참여했다. 온누리전도학교는 매주 감격의 시간이었다. 나는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익히고 요약해서 아들람쉐마스쿨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배운 복음의 무기를 들고 남은 여정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오직 성령님이 선장이신 배에 탄 사람 낚는 겸손한 어부로 살고 싶다.

장로칼럼

퍼져나가는 ‘온누리 융합선교’



전영수 장로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 이사장)

2000선교본부와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이하 SWIM)가 지난 11월 16일과 18일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를 주제로 선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 콘텐츠를 현지

보급하기 위해 기획했다.

2000선교본부와 SWIM은 2017년부터 튀르키예(당시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아랍어 QT, 아랍어 일대일제자양육 등의 융합선교 콘텐츠를 보급했다. 이 융합선교 콘텐츠들이 난민교회에서 훌륭하게 열매 맺었고, 중동선교에 효과가 좋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 열매를 시리아와 동일한 언어권인 요르단과 레바논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 주제는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로 정했다. 그 이유는 중동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서 가정의 행복 여부가 아버지에게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교회에 가게 하기도 하고,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주제로 선정했다.

워크숍 참석대상은 현지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으로 정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보급하는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 콘텐츠를 그들 스스로 현지교회 성도들에게 보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참석 대상자를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추천했는데, 요르단과 레바논을 합쳐 목회자와 리더십 97명이 참석했다. 그들에게 소개한 온누리교회 융합선교 콘텐츠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학교, 아버지의 가족 축복, 아버지의 QT 등이었다.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며 소개했다.

나는 이번 워크숍에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와 후손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가정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부러움을 유발해서 복음에 관심 가지는 생활선교(Life As Mission)의 비전이 구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 그들에게는 가정과 관련한 사역이 생소했는데,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를 소개했더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질문도 활발하게 하면서 도입 의지를 보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여러 가지 선교적 의미가 있다.

첫째,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교회에서 열매 맺고 입증된 온누리교회 융합선교 콘텐츠가 요르단과 레바논 등지로 확산한 것이고, 둘째, 현지교회가 온누리교회와 같은 평신도사역을 시행해서 현지 성도 일꾼이 늘어나면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을 선교일꾼으로 동원할 수 있다. 셋째, 온누리교회 선교사와 현지교회, 현지 사역자 등이 연합해서 현지에 적합한 온라인 선교사역을 시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 이후 시행할 첫 번째 사역은 내년 초 개설될 요르단과 레바논의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일을 위해서 현지 선교사들과 아버지학교, SWIM 등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현지 목회자들이 온누리교회 선교사들과 협력하면서 융합선교를 현지교회에 활발하게 도입할 것을 기대한다.

권사칼럼

예수님을 광고하는 포장지



김영애 권사
(故 김영길 장로 사모)

2주 전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 지면을 빌려 임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한다. 그날 임직자들에게 권면의 말을 나누면서 나의 각오도 새롭게 다졌다. 글로 다시

한번 그 각오를 떠올리고, 임직자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 부부가 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 새끼와 같다는 이야기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눅 19:30-31).

한가롭게 매여 있던 나귀 새끼에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말 한마디에 부름을 받았다. 등에는 겹옷이 없고, 존귀한 예수님이 우리 등에 올라타셨다. 그리고 그 앞에 종려나무가지가 깔리고,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때 나귀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자신에게 향하는 줄 알면 큰일 난다. 괜히 우쭐대다가 나귀의 등에 업힌 예수님이 떨어지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모시는 나귀 새끼다. 나귀 새끼인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온누리교회 권사, 안수집사가 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쭐대는 마음이 없기를 바란다. 성도들이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조금이라도 우쭐대다가는 우리 등에 업히신 예수님이 떨어지신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나신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중략)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1-5).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 붙어 낼 수 있는 과실은 사랑, 화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 열매들이 삶에서 맺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다.

어느 글에서 ‘열매는 광고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포장지다. 우리 삶은 꾸밈없이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판매하고 싶어 하신다. 온누리교회 권사, 안수집사의 삶을 보며 이웃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기를 소망한다. 이웃들이 삶과 죽음, 인생에 대해 궁금해 할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한다. 열매 가득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고되기를 바란다. 온누리교회 임직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온 열방이 예수님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가와무라 요시키
전도사(일본어예배부)

나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다. 흔히들 혼혈이라고 하면 서양인과 동양인 혼혈을 생각해서인지 내가 혼혈이라는 것을 눈치 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만큼 일본과 한국은 가깝다. 생김새도, 문화도 유럽과 비교하면 가깝다. 그런데 가깝게 보이는 양국 사이에는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마찰을 겪으며 자란 나에게 양국 사이는 매우 멀 뿐이다.

목회자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듣고 배웠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다소 부담으로 느낄만한 말도 어린 나에게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초등학교생이 되고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무게를 느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의문을 가지고 성장했다. 이는 점점 신앙의 갈등으로 변해갔다. 한일관계 마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내가 그런 일을 겪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바보처럼 느껴졌다. 음악이나 드라마, 한일문화교류, 경제교류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있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슬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생을 마찰 투성이인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의구심과 회의감, 실망이 커져갔다.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처음으로 동경에서 열린 러브소나타에 참가했다. 그때의 일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하용조 목사의 곧고 선명한 메시지에 2만 명이 운집한 회장이 조용

해졌다. 많은 일본인이 한국인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용기, 사랑으로 전해준 용서의 메시지에 눈물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절대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한국과 일본의 골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크리스천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기적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희망이다.

하용조 목사의 책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내용 중에 러브소나타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쓰여 있다.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가 러브소나타를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갈등의 연속이었다. 일본에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 갈등 속에서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는 기도했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했고, 매일 새벽 8천명이 넘는 성도가 모였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일본을 사랑하고 싶다며 울면서 기도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러브소나타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교회의 역사가 크게 변화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는 밤낮으로 전쟁을 일삼던 시대에 비하면 평화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변함없이 서로 대립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가 소원(疎遠)하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 상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랑이 식은 사회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이란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상대방을 변화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당신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주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마찰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기도한다.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2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다스리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사람’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완악함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불순종과 완악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과 완악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32절).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사람은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로 대하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불순종이 없다면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긍휼을 받기 위해 불순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순종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긍휼을 끝까지 거부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mercy)과 은혜(grace)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심판과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긍휼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을 받

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은혜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많은 고백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은혜로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은혜에 정복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불순종이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의 죄악이 은혜로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구원받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것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송영을 드리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러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33~36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불드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려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돈도 필요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면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만물을 불드시는 분이 나의 삶도 불드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십니까? 그분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절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질병,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불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달려온 이 모든 진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입니다. 1~8장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했고, 9~11장은 이스라엘 불신앙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에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의 부요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됩니다. 12장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모습에 적용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과 12장 중간에 하나님께 대한 송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리와 지식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영광 받으실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려보십시오. 삶의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바라볼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모든 것이 해석될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지난 30년...

1990년 4월 3일 자비량 선교사로 도미니카에 온지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단체의 방향이었기에 나는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한국 대사관 행정보조원 신분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현지 대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자 했는데 언어와 문화라는 큰 장벽 앞에 좌절했다. 기도하면서 국립대학(U.A.S.D) 심리학과에 입학해 7년 동안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며 공부했다. 그 덕분에 그렇게 높아 보였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립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다. 4년 동안 대사관에 근무한 다음 국립대학 앞에 문구점을 개업했다. 운영이 잘 돼서 도매업까지 하며 세 자녀 교육과 교회 건축을 감당할 수 있었다. 처음 15년 동안 생활자립, 학교공부,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느라 참 바쁜 나날을 보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안정적인 것 같았는데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다. 아내 정덕자 선교사에게 폐종양이 발견됐다.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2008년 5월 아내가 폐암말기 선고를 받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급히 본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다. 선교지를 오가는 5년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2013년 5월 하나님께서 정덕자 선교사를 천국으로 부르셨다. 나는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눈앞의 현실이 막막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았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018년 8월 한 동료 선교사님을 통해 이교자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주셨다. 이교자 선교사님은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선교사로 오셨다가 2012년 도미니카공화국 시골도시인 막고리스에서 독신으로 사역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6월 15일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이교자 선교사와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2019년 2월 직장생활을 하던 막내아들 사무엘이 사고로 하나님 곁으로 갔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은 큰 슬픔과 혼돈에 빠졌들었다. 이 상황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교자 선교사님과 결혼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셨다. 다시금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주셨다. 결혼하고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로 허임되면서 큐티, 일대일제자양육, 소그룹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그 덕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산토도밍고교회와 막고리스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막고리스교회는 현지인 니디오 목사님과 연합사역도 시작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비대면 여름 아웃리치와 뉴욕IN2온누리교회와 뉴저지온누리교회의 현장 아웃리치가 큰 감동

과 도전을 주었다. 뉴욕IN2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원들이 산토도밍고 국립대학 캠퍼스에서 사영리 전도를 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오후 국립대학 캠퍼스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노방전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영리로 벤치에 앉아 휴식하는 현지 대학생들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8월부터 11월까지 3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사역을 얼마나 기다리셨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설레는 마음으로 전도를 나가고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도미니카 뿐만 아니라 아이티와 중남미에서도 하나님이 이뤄 가실 사역을 꿈꾸며 기도한다.

/ 김종호 선교사(도미니카)

서빙고

O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점출은전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안산온누리M센터 단기 봉사자 모집

내용: 미술전시회 작품 보호 및 안내

장소: 서울 남산도서관 1층 남산갤러리(용산구 소월로 109)

일시: 아래 일시 중 1~2일 봉사(11월 22일(화)~25일(금) 13:00-17:00, 11월 29일(화)~12월 2일(금) 13:00-17:00)

문의: 온누리지역아동센터(031-491-9601)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모집

모집: 몽골,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 자녀들을 섬겨주실 교사

시간: 유치부~초등3학년(11:00-12:30), 초등4학년~중학생(11:00-14:00)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안산 온누리M센터 성탄 연합예배 및 M Festival 성탄 선물 후원 요청

물품: 목도리, 장갑 등 겨울용품 및 생활용품, 소량 후원 가능

문의: 정연웅 간사(031-491-9650)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반주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에 있는 분

문의: 김재혁(010-3353-9150)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 개발자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O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운동화(사이즈 190-230)

3.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집에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수건(욕실 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부천

O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대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동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해외 온누리교회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소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미서부 ■얼바인 박신용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서진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 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당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철 김상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구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혜태 도육한 려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근범 박시형 박성은 박성은B 박성천 박철중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식 스티브 안사무엘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준 유진아 윤매리아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선 장동원 정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찬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영 최대홍 최성규 최정민 최영민 최용준 최중현 최형준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신대중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성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환 김용산 김은하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연은 한해원 마주배 박씨마 박영규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상우애늘 사가르 에릭 마 아를스톨스 윌리엄 이서광 이세영 이진이 이진희 윤준석 윤치연 전 진 제인량 차제미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현구 권여람 김가희 김다모래 김동규 김반석B 김반석B 김세미 김수영 김영선 김의연 김종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지선A 김지선B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해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세미 박은혁 박예슬 박유진 박지수 박찬양 박태훈 박영민 배명지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송재천 신기환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해애원 안류택 양현모 오국현 오성광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성하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신혁 윤종연 윤태정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선영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신숙 이신일이세영 이태후 이요한 이진수 이주원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목 이휘영 임광범 임노완 임동현 임송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장지훈 정기은 정성원 정연영 정연상 정예은 정준혁 정주영 정희애 정영민 조민희 조슬기 지수정 주찬휘 진성희 진유석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우대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승남 황연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득환 권영선 권용선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목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주익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승렬 김종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구 류지영 문성기 문창일 문창호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래 박상승 박성근 박성근 박영대 박용국 박종현 박찬민 박태섭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연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진 송일석 안용태 안종민 안태환 양유식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민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양태진 오성연 우광남 원우영 유병훈 유원영 박용래 박상승 박성근 박성근 유재천 윤희홍 윤성일 유은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박유수 이다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용대 이창모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영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광우 정문영 정병권 정보원 정순복 정영선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영 정진하 정주호 정희원 조창진 조수일 조은일 조상록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준기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태중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광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황영국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광병철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서진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 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현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슬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신희 박아영 박요셉 박윤민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경민 이현우 장재우 장현호 장희진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전도사 강요안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현 안지현 이만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윤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무기 정성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타지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한스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준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환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태택 박진재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희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우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운환 코다이라 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안정식 임한식 오명진 정석환 최태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인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경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근구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엄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한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양수광 최도환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은혜 김경결 김희찬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김지영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진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소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윤석 최지현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광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영어 놀이 프로그램 'Dream Seed' 교사 모집

모집: 소그룹

교사모임: 2023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수업: 2023년 3, 4월 토요일

장소: 도곡교육관 B동 1층 꿈아이를

문의: 박정욱 코치(010-4394-9309)

*교사 자녀가 드림씨드 등록 시 등록비 할인 혜택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www.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권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장은정 팀장(070-4340-2510)

재 정

십일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기파습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 천

12/1(목) 강남B 정선아성도 시모상 고 김희경

12/2(금) 서초A 윤홍재 권사 모친상 주복순

12/2(금) 김포 김유선성도 시모상 고 김은자

12/2(금) 한강 김수현 집사 부친상 고 김용구

12/3(토) 이촌 김동연 집사 모친상 고 정경실

12/4(주일) 서초B 고 박문자성도

12/4(주일) 양재B 노하수 장로 모친상 고 김동순

12/5(월) 송파B 담담 송영동 목사 빙모상 고 이상희

12/5(월) 성동광진 하유미 성도 모친상 고 박외선

12/6(화) 강촌 이승우 성도 모친상 고 김경애

12/7(수) 용산박정에 권사 모친상 고 이광열

12/7(수) 성동광진 이준우 집사 부친상 고 이종오

12/7(수) 가정사역 박희성 성도 부친상 고 박영익

du+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연말연시,
미자립교회 목회자, 해외 선교사, 동역자에게
두플러스 이용권을 선물하세요!

두플러스 구독자를 위한 특별 할인

기간 • 2022.11.01 ~ 2022.12.31

두플러스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파일 형태 제외)

두플러스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 생명의 삶 PLUS, 목회와신학, 그말씀, 과월호까지
- 성경 검색과 설교를 위한 다양한 목회자료를 검색하는 아카이브

정가 240,000원 **20%** 특별 할인가 192,000원

QT 또는 독서만 원한다면!

두플러스 QT 플랜 (1년 이용권)

- 생명의 삶, Living Life, 전 연령 QT지

두플러스 도서 플랜 (1년 이용권)

- 무제한 독서! 전자책과 성우 낭독 오디오북까지

정가 118,000원 **20%** 특별 할인가 95,000원

구독 문의 02.2078.3234

특별 할인가는 전화 또는 채팅을 통해 상담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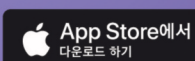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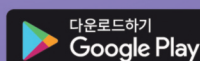
카카오톡에서 '두플러스'를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세요.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 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duplus 두플러스는 두란노서원에서 시작하는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